

예술무대산 × 극단 카카시좌 공동제작 인형극



귀 교를 위한 단체관람 제안 : 50% 할인

공연 개요

- ◆ 2019년 3월 요코하마, 도쿄에서 초연. 8월 예술의전당에서 한국 초연
- ◆ 2020년 5월 일본 도쿄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아시테지 세계총회 예정작



어린이명작무대 2 <루루섬의 비밀>

일 시	2019. 10. 24(목) ~ 26(토) 목.금 10시 30분 토 11시, 15시
장 소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관 람 료	전석 2만원
관람대상	5세 이상 (적정연령 : 초등 저학년)
러닝타임	60분
출 연 진	이이다 슈이치, 김양희, 키쿠모토 카요, 최석원
제 작 진	연출 조현산 / 구성 이수진 / 작곡, 음악감독 류찬 인형, 미술 류지연 / 의상 조경희 그림자미술감독 고토 케이 / 조명 김건영 음향 츠도 마모루 / 무대감독 강노을
제 작	예술무대산(한국), 극단 카카시와(일본)
주최.주관	인천광역시 / 인천문화예술회관
문 의	기획담당 유은미 ☎(032)420-2739

기획 의도

인형극단 예술무대산의 독특한 인형과
오브제 그림자 전문극단 카카시좌의 섬세한 그림자와 영상의 조화

인형극 '루루섬의 비밀'은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인형극단 예술무대산과 68년 전통의 일본 그림자 전문극단 카카시좌가 2013년부터 5년간의 교류 및 제작 워크숍을 통해 두 극단의 특성을 상호 탐색하고 노하우를 공유하며 공동제작한 작품이다. 예술무대산의 독특한 인형과 오브제, 그림자 전문극단 카카시좌의 섬세한 그림자와 영상의 콜라보레이션으로, 대사 없이도 관객들이 오리지널 스토리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독특한 시각적 무대 언어를 선보이며, 현실과 판타지를 넘나드는 이야기 속에서 아이의 현실적인 성장을 담았다.



공연내용

현실과 판타지를 넘나드는 모험을 통한 하루의 성장

시끄러운 갈매기, 휴대폰이 잡히지 않는 섬으로 향하는 배 위에서 우울한 하루.
하루는 처음으로 도시의 집을 떠나 발명가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루루섬에서 지내게 되었다.
바다 한 가운데 시간의 지도 위에 떠오른 조금 신기한 루루섬.
하루를 마중 나온 조금 신비한 검은 고양이 마루와 뱀, 부엉이, 돼지, 닭 등 동물들과 할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섬 생활이 시작되었다.
할아버지는 아직 낯설고 심심한 하루에게 고래섬을 찾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하루가 잠든 사이 보물을 노리는 해적들이 루루섬에 숨어든다. 동물들과 동굴 모험을 떠난 하루에게,
할아버지가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하루와 동물들은 해적을 내쫓기 위한 반격을 개시!
해적들은 빈손으로 루루섬을 떠나게 된다.
그리고 하루에게도 섬을 떠나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돌아왔다.
집으로 가는 길에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주변의 것들을 보기 시작하는 하루.
하루의 시선은 점차 넓어지고 루루섬은 하루를 다시 만날 시간을 위해 항해를 떠난다.



제작과정



2012년 예술무대산과 극단 카카시좌는 브라질 SESI BONECOS 페스티벌에 초청된 아시아 극단으로 처음 만났다. 인형과 독특한 시각 표현 감성이 강점인 예술무대산과 영상 기술과 그림자의 디테일 표현이 강점인 극단 카카시좌의 공동 제작 공연은 2013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5년 동안 인형과 그림자 워크숍을 진행하며 각 극단의 방법론을 탐색해 왔다. 공동제작 공연의 이야기 주인공은 소녀와 고양이로 정했다.

2019년 3월, 도쿄와 요코하마 첫 공연을 목표로 한 공동제작 공연 <루루섬의 비밀>은 2018년 2월, 2주 동안 진행된 워크숍을 진행하며 이야기, 배경, 메시지, 표현 방향 등이 구체화되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세계관에 대한 메시지를 담아내며 전 세계 어디서든 통할 수 있는 비언어극으로 제작하기로 합의한다. 관객들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예술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인형과 그림자, 영상을 녹아 낸 새로운 시각적 무대 언어를 목표로 한다.

주인공 하루와 조금 신비한 검은 고양이 마루, 루루섬의 환경, 할아버지 농장의 동물들, 보물을 찾아 숨어 든 해적 등 등장인물에 투영된 <루루섬의 비밀>은 현실과 판타지를 경계 없이 오가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이야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비밀'처럼 발견할 수 있는 숨은 메시지를 담았다. 진짜 '보물'의 의미와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한 하루의 '성장'을 찾아내는 것도 <루루섬의 비밀> 중의 하나이다.

공연사진



극단소개

ARTSTAGE
SAN예술무대 산



예술무대산(2001~)은 인형이 배우로써 무대 위에서 숨 쉴 수 있도록 생명을 불어넣고 인형극이 가지는 가능성과 인형극의 문법을 발견하고 실험하는 것을 목표로 창작하는 단체입니다. 예술무대산은 인형을 매개로 한 다채로운 이야기와 시각효과의 끊임없는 진화를 통해 관객에게 즐거움, 감동, 여운을 제공하고 나아가 삶의 화두를 제시합니다.

<주요공연>

<견우와 직녀> <그의 하루> <달래이야기> <로미오와 줄리엣> <상자> <손없는 색시>
<선녀와 나무꾼> <우주비행사>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등(가나다순)

<주요경력>

2009년 스페인티티라지이 인형축제 최우수작품상 수상 <달래이야기>
2012년 중국 세계인형극총회(UNIMA) 최고작품상 수상 <달래이야기>
2015년 월간 한국연극 선정 공연베스트7 수상 <상자>
2018년 남산예술센터 시즌 프로그램 <손없는 색시>
2009년 이후 현재까지 <달래이야기>는 세계 20개국 90개 이상의 도시에서 초청 공연 중

극단소개



극단 카카시좌



극단 카카시좌(1952~)는 일본 최초의 그림자 전문 극단으로, 1952년 창단 이후 독자적인 수법으로 그림자 세계를 개척하며 수많은 작품을 만들어 왔다. 그림자의 무한한 매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꿈을 키우고 싶다는 극단의 모토 하에, 현재는 그림자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새로운 무대 작품을 비롯하여 출판, TV, 영상 작품 등을 제작하며 일본 및 해외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주요공연>

<정글북><파랑새><어린왕자><원더쉐도우><보물섬><닐스의 신기한 여행><오즈의 마법사>
<핸드쉐도우 판타지 ANIMARE> 등

<주요경력>

1973년 프랑스 · 몬테카를로 국제TV영화제 · 우수작품 수상 <타케토리 이야기>
2009년 슈베비슈 그윈트 국제 그림자극 페스티벌 초청, 초연 <ANIMARE>
이후 네덜란드, 체코, 핀란드, 브라질 등 해외 페스티벌 초청
2014년 이후 <ANIMARE>는 예술의전당, 아시아문화전당 등 한국 극장을 포함 22개국 33개 이상의 도시에서 초청 공연 중

언론리뷰

한일 양국이 빚어낸 환상적인 어린이극

최근 한일 갈등이 깊어지고 있지만 민간교류는 큰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의 선택과 국민 개인의 선택은 다르다는 인식이다.

한국 인형극단 '예술무대산'과 일본 그림자극단 '가카시좌'가 공동제작한 인형극 '루루섬의 비밀' 역시 시국과는 무관하게 양국 어린이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루루섬의 비밀'은 독특한 인형과 섬세한 그림자, 그리고 서정적인 영상을 이용해 현실과 판타지 세계를 오가는 모험 이야기다.

한국인 배우 2명과 일본인 배우 2명은 설 새 없이 무대를 누빈다. 배우가 직접 연기도 하지만 주인공은 인형과 그림자다. 배우들은 인형과 그림자가 무대에서 숨 쉴 수 있도록 생명을 불어넣는 역할을 주로 한다. 사람과 인형과 그림자, 서로 다른 세 요소가 빚어내는 신비한 무대언어가 호평을 이끌고 있다. 3월 일본 요코하마와 도쿄에서 초연된 '루루섬의 비밀'은 8월 한국 초연 이후 내년 5월에는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세계총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루루섬의 비밀'은 휴대전화 전파도 잡히지 않는 루루섬의 할아버지 집으로 여행 온 소녀 하루의 성장 이야기다. 하루에게는 루루섬의 모든 것이 낯설고 심심하기만 하다. 하지만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서 하루는 발명가인 할아버지로부터 흥미진진한 섬 이야기를 들으며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연다. 검은고양이 마루를 비롯해 돼지, 뱀, 닭, 부엉이, 앵무새와 친구가 된 하루는 그들과 섬 구석구석을 모험한다. 우여곡절 끝에 해적을 소탕한 하루와 친구들은 섬의 숨겨진 비밀을 공유하며 돈독한 우정을 나눈다.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하루의 눈에는 섬의 작은 부분까지도 소중하게 보이기 시작한다.

한국을 대표하며 세계 20개국 90개 이상 도시에서 공연한 인형극단 예술무대산과 68년간 독자적으로 그림자 세계를 개척하며 수많은 작품을 제작한 일본 최초 그림자 전문극단 가카시좌는 이 작품을 위해 5년 동안 합동 워크숍을 지속했다.

하루와 마루처럼 한국어와 일본어가 모두 적용되는 이름을 내세운 것도 그런 성과 가운데 하나다. 그림자와 인형이 만드는 '바다를 담은 나무들' '노래하는 숲' '반짝이는 동굴' 장면은 어린이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공연이 주는 시각적 환상의 매력에 푹 빠진 어린이 관객들은 이미 주인공 하루처럼 웃음을 머금고 마음에 꿈을 품고 있다.

주간동아 2019.08.16 1202호 (p69~69)

한국 인형극+일본 그림자극, 다른 듯 닮은... 우리는 친구

조현산 & 고토 게이... '루루섬의 비밀' 만든 韓日 연극인 5년간 공동 제작한 인형극 선택... 가족의 사랑·환경 문제 담아내

"주인공 소녀의 이름 '하루'는 한국에선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시간'을, 일본에선 '봄'을 뜻하죠. 하루의 친구인 고양이 '마루' 역시 의미는 다르지만 두 나라에서 모두 쓰이는 단어고요. 다른 듯 닮은 양국의 특별한 관계를 담고 싶었습니다."

소녀와 고양이 인형을 사이에 두고 앉은 두 남자가 마주 보고 환하게 웃었다. 한국의 인형극단 '예술무대산'의 조현산(50) 대표와 일본 최고(最古) 그림자극단 '가카시좌(かかし座)'를 이끄는 고토 게이(64) 대표는 5년간 공동 제작한 인형극 '루루섬의 비밀'을 지난 6일부터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공연하고 있다. 도시에 살던 소녀 하루가 발명가 할아버지가 사는 루루섬에 여행 와 마루를 비롯한 동물 친구들과 흥미진진한 모험을 벌인다. 대사가 거의 없는 비언어극이지만, 인형과 그림자는 물론 음악과 영상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며 가족의 사랑과 환경의 소중함이라는 주제를 그려낸다. 첫 공연이 끝난 극장 안에서 만난 두 사람은 약속한 듯 가슴을 쓸어내리며 "아이들이 공연 내내 깔깔대는 모습을 보니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고 했다.

두 사람은 각자의 나라에서 인형극과 그림자극이라는 독특한 분야를 개척해왔다. 조 대표가 2001년 창단한 '예술무대산'은 인형극에 무용·영상 등을 도입한 실험적 작품들을 선보이며 세계 20개국 90여개 도시에서 공연해왔다. 한국전쟁으로 인한 가족의 비극을 그린 대표작 '달래 이야기'는 '인형극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와 함께 2012년 중국 세계인형극총회에서 최고 작품상을 받았다. 1952년 아버지가 세운 '가카시좌'를 대를 이어 이끌고 있는 고토 대표 역시 기존엔 막 뒤에서 공연하던 배우들을 무대 전면으로 내세우고, 영상과 음악 등을 결합하는 등 현대적으로 연출한 그림자극으로 주목받고 있다.

2012년 브라질에서 열린 인형극 페스티벌에서 '달래 이야기' 공연을 본 고토 대표가 먼저 조 대표에게 손을 내밀었다고 했다. "이전에도 한국 인형극을 본 적 있지만, 기술은 물론 감정 표현까지 이렇게 섬세한 작품은 처음이었어요. 장르 간 결합에도 열려 있는 모습에 '우리랑 잘 맞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듬해부터 양국을 오가며 서로의 공연 방식을 배우는 워크숍을 진행했고, 5년 전부터는 인형과 그림자는 물론 양국의 문화가 한 무대에서 호흡하는 작품을 기획했다. '가족'과 '환경'이라는 한·일 공통의 관심사를 주제로 선정하고, 공연 방식 역시 양국 단원들이 최대한 함께하도록 구성했다. 예컨대 '하루' 인형을 움직일 때 상체는 한국 단원이, 하체는 일본 단원이 잡는다. 그림자극 장면에도 한국 단원이 일부 참여한다. 조

대표는 "처음엔 낯선 섬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던 하루가 점차 할아버지와 동물들에게 마음을 열어가는 줄거리 역시 멀게만 느껴졌던 두 나라 극단이 가까워진 과정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일 관계가 급격히 얼어붙으며 '루루섬의 비밀'은 뜻밖의 시련을 겪었다. 예술의전당 공연 이후 예정됐던 국내 공연 일부가 반일(反日) 정서를 이유로 취소된 것. 두 대표는 그러나 "지금도 오히려 이 작품을 보여줄 적기"라고 입을 모았다. "불편하다는 반응도 있겠지만, 스스로는 중요한 순간에 의미 있는 공연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미움만으로는 긍정적인 미래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이겠죠."(조 대표) "'정치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예술'이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늘 기억합니다. 이 공연이 탄생한 과정이 양국 관계에 하나의 가능성이 되길 바랍니다."(고토 대표)

조선일보 양승주 기자 (2019.8.14.)

티켓예매 및 이벤트

★ 단체관람

- 20인 이상 단체의 경우 50% 할인된 가격(1만원)으로 예매
- 회관 공연기획 담당에게 연락(032-420-2739)하여 신청접수 후 예매

★ 개인관람

- 예매처 : 인천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엔티켓, 인터파크
- 조기에매할인 : 티켓오픈일 부터 **8월 31일**까지 30% 할인된 14,000원으로 예매

★ 이벤트 - 아빠무료관람

- 자녀와의 정서적 교감을 위하여 **토요일(10월 26일) 공연**에 한하여 자녀를 동반한 아빠는 무료관람
 - 이벤트 적용 티켓예매 방법 :
 - . 개별관람 예매 시 : 회관홈페이지 예매시 '아빠무료초대' 티켓권종 선택
 - . 단체관람 예약 시 : 20인 이상(유료관객기준) 단체관람의 경우도 '**아빠무료초대이벤트**' 적용 가능
- 다만, 공연기획담당자(032-420-2739)를 통해 단체로 사전예약 필요



감사합니다.

CONTACT

인천문화예술회관 기획운영팀

21569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149

기획담당 : 유은미

TEL : 032-420-2739

FAX : 032-440-8867

E-Mail : emyoo@korea.kr